

제415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6월19일(수)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류제출 요구의 건
2.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긴급 현안질의
3.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추가)
4. 청문회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추가)

상정된 안건

1. 서류제출 요구의 건 2
2.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강선우 위원 외 14인 서면동의) 18
3.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18
4. 청문회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19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주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먼저 지난번 회의 때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를 하지 못하셨던 박희승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승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지난번 복지위원회 1차 회의 때는 저희 지역구에서 큰 불교행사가 있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들어가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의 때 최근의 의료계 상황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오늘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국회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의료계 비상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위원님들의 요구에 침묵으로 응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임을 밝힙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6일 일요일 서울대 의대 및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 그리고 서울대병원 집행부와 면담하고, 17일 월요일에는 환자단체들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면담 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지금 상황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고 환자와 그 가족들을

포함한 국민들께서 마음을 놓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에 따라 주어진 권한과 역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정부와 여당도 지금 당장 보건복지위원회에 복귀할 것을 촉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저는 국회법에 따라 향후 필요한 조치를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서류제출 요구의 건

(10시04분)

○위원장 박주민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8조에 따라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긴급 현안질의 등과 관련된 서류제출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상정해야 되는 순서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안건은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현안질의를 무산된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유감을 표합니다. 복지부는 국회에 나와서 국민 앞에 현재 상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국민을 대리해서 질의하는 국회에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수많은 국민과 환자분들 그리고 그 가족분들께서는 복지부가 브리핑장에서 일방적으로 전하는 입장이 아니라 진정 국민이 궁금해하는 질문에 답변하기를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내 그 의무와 기대를 저버린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불참하셨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의료계의 집단 휴진과 장기화되는 의정 갈등에 대해 정부에게 그 책임과 역할을 물어야 됩니다. 특히 복지위원님들은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그리고 그 소속 의원님들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2주가 다 되어 가도록 본회의, 상임위 모두 불참하고 아무런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업무태만이고 직무유기입니다.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보건복지위원회가 조속히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소속 보건복지위원님들, 혹은 국민의힘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특위 위원님들을 만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위에 복귀하셔서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비난은 감당하셔야 될 것입니다.

어제 저희 보건복지위원회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등 4개 환자단체분들을 만났습니다.

환자분들의 걱정은 매우 컸습니다. 또한 환자단체분들은 ‘환자단체가 국회 안으로 들어

오는 데 녀 달이 걸렸다. 환자와 그 가족들이 피가 마르고 애가 타는데 왜 국회가 나서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뼈아팠고 죄송스러웠습니다. 국회의 책임과 역할을 다시 한번 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복지부가 11개 환자단체에 일대일 담당자를 지정하고 소통하겠다고 했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예 연락을 받지 못한 단체도 있었습니다.

정부가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관련된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국회 차원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복지부가 다시 한번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사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와 필수의료에 필요한 인력이 공급되고 또 지역의료에도 충분한 인력이 공급돼야 되는 등 의료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복지위원회도 그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결과가 또 정당하기 위해서는 과정도 정당해야 되는데 과정 자체에 대한 많은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이 과정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짚을 것은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건복지위에서는 그런 것들도 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의료계에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회를 좀 믿어 주십시오. 국회가 여러 차원에서 소통도 하고 방안도 만들고 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에 다시 복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환자들 곁으로 돌아와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그 권한과 책임을 다해서 국민분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드릴 만큼 드린 것 같고요. 관련해서 말씀하실 분들……

백혜련 위원님.

○**백혜련 위원** 오늘도 여당 위원님들이 자리에 안 오신 것을 보고 너무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무리 국회의 상황이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관계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권이 걸린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 가리지 않고 당연히 협조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의사들의 집단 휴진으로 인해서 굉장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고 환자들의 가족들은 정말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 위원님들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정말 깊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산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지금 국민의 눈치를 봐야 할 상황입니다. 정말로 한시가 바쁜 이때에 여당 위원님들이 우리 복지위에는 정말 복귀해서 가지고 같이 회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3선이 돼서 9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그리고 정상적인 보건복지위 회의에 복지부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하나도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도외시하는 처사이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보입니다. 의료 공백의 책임 있는 당사자인 정부가 이렇게 민생을 내팽개칠 수 있는지 매우 실망스럽고 아쉽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출석 거부는 국회나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출석해야 한다는 헌법 제 62조제2항과 국회법 제121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예의를 저버린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경각에 달린 이런 비상 상황에서, 또 환자를 비롯한 많은 국민이 의료 공백의 고통과 어려움을 호소하며 사태 수습의 실마리와 대안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책임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고 이 자리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정말 국민들의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이 현안이 정말 긴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가 그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료 공백, 이런 의료대란이 일어난 사태가 무엇인지 그리고 뜬금없이 2000명 증원이라는……

의사들의 증원의 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000명 증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것이 나왔는지, 그리고 이게 사태 해결이 여태까지도 안 되고 있는 것은 어떤 원인에 근거한 것인지 많은 국민들이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복지위에서는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청문회를 개최해서 국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위원장님께서 국회법에 정해진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청문회라든지 이런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분명하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박주민 김선민 위원님.

○김선민 위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위원입니다.

통탄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휴진에 이어서 어제 일부 개원의들도 집단 휴진에 참여했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아프면 어디를 가야 하냐고 묻습니다. 의사도 정부도 묵묵부답입니다. 이 상황에서 상임위가 구성되어서 두 차례의 전체회의를 열도록 부처 공무원들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잡혀 있던 개별 의원실 업무보고조차 어떤 이유로인지 취소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정부와 국회가 매일 밤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저는 2001년 이후 20년 넘게 국회 피감기관의 직원과 임원으로 일했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상임위 출석을 거부하는 공무원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번 의료대란과 관련한 기초상황 점검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에 자료 요청을 했지만 협조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가 국민의 건강을 염려해서 요청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는 것 또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의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 엄중한 상황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출석을 거부하고 자료 요청에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는 것은 여야 갈등 상황이라는 이유로 묵과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법 제121조는 상임위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은 출석하여 답변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벌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는 국무위원을 그대로 두는 것은 국회의 권위가 실추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헌법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복지부는 지난 2월 23일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선포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 소통입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와의 소통은 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을 편리하게 추진하는 목적으로만 재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재난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불통의 아이콘인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번 복지부의 출석 거부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단호하고 확실한 책임을 물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개최해서 의료대란 사태와 관련된 보건복지부 공무원들과 산하기관장들을 증인으로 불러 주십시오. 이와 함께 전공의협의회 대표, 대한의사협회 임원진, 그리고 서울대병원·서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임원, 그리고 환자단체 회원들 그리고 대표들도 참고인으로 불러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과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민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 위원 성남 중원의 이수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어제 집단 휴진 그리고 총궐기대회가 있었습니다. 27일부터는 무기한 휴진이 예고되었습니다. 국민 불안과 고통이 너무 심각합니다.

총선을 두 달 앞두고 발표했던 의대 정원 2000명, 윤석열 대통령은 왜 2000명이여야 되는지 제대로 된 근거조차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따라라, 양보는 없다 이렇게 의료계를 몰아붙이면서 결국은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몰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간호법을 총선 직전에 간호사법으로 발의하면서 마치 입법에 나설 것처럼 하더니 총선이 끝나자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을 닦아 버립니다. 결국은 국민의 건강, 환자의 생명마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입니다. 정부 여당의 이 파렴치한 행태가 오늘의 사태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어제든 증원안 재논의 등 의협 요구를 거부하고 의협 해산 등 강경 입장을 내세우면서 기어이 무조건 항복을 받아 내겠다 이런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료 인력 확대는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언급하셨듯이 많은 국민들께서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3000명에서 한꺼번에 2000명을 늘리고 그것으로 인한 낙수효과로 현재 부족한 필수의료 또 지역의료 인력을 채우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너무나 단편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 박주민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그런데 5분 아니고…… 아까 5분인데 저만 3분을 주시나요?

○위원장 박주민 아, 그랬어요?

○이수진 위원 예, 잘못 시간을 넣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좀 넣어 주십시오.

○위원장 박주민 예, 그러면 2분 더 드리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의료개혁은 총선용 그런 졸속 방안이 아니라 사회적 숙의를 통해서 제대로 된 방안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동안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들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오래 기다릴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정부에 맡겨서는 이 의정 갈등 해결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난 일요일 서울대병원 비대위를 만나고 어제 환자단체를 만나서 의견을 듣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자리는 이제 국회가 나서서 사태의 원인과 대책을 찾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 텅 비어 있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리고 불출석한 것입니다.

정부가 여러 상임위를 동시에 현재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회법상의 공식 상임위는 거부한 채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만든 내부 동아리 같은 특위 활동은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심각한 직무유기이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입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처가 동시에 국회를 보이콧하는 것이 국무총리나 대통령실의 용인, 방조, 지시 없이 가능할 수 있는지요? 정부의 집단 업무거부,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장관관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 정부를 정상화시키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부 측 불출석으로 그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청문회 개최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청문회 개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환노위 간사를 하는 21대에도 산재 청문회를 통해서 SPC그룹 총수, DL그룹 총수를 불러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책임져야 하겠지만 먼저 복지부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될지 분명하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방적인 행태 반드시 우리 국민들께 소상하게 보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료 현장 정상화를 위해서 우리 복지위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판단을 하셔서 청문회 개최를 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민 예.

장종대 위원님.

○장종대 위원 대전 서구갑 더불어민주당 장종대 위원입니다.

지난 2월 1일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발표 이후 만 5개월째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은 해소될 기미가 없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요일 서울대병원 휴진을 시작으로 의료계는 어제부터 또 무기한 집단 휴진을 강행했고 정부는 구상권 청구, 건보 선지급 제외에 이어서 의협이 법인 해산 가능성까지 내비치면서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정부와 의료계의 치열한 대립 가운데서 하루라도 치료가 시급한 환자와 그 가족들은 애타는 가슴만 치고 있을 뿐입니다. 언론 보도는 큰 혼란이 없었다, 휴진율이 미미했다며 이번 집단 휴진을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다루고 있지만 몇 달을 기다려서 외래진료를 앞두고 일방적인 휴진 통보를 받은 환자들의 입장에서 이번 집단 휴진이 결코 대수롭지 않은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금 환자의 곁에는 정부도 의사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저는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회가 그 자리를 채워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상임위에 이어 오늘도 상임위에 불참하신 여당 위원님들께는 깊은 유감을 먼저 표합니다.

‘환자의 삶은 민생 밖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어제 있었던 환자단체와의 간담회 석상에서 나왔던 발언입니다. 이 말이 제 마음에는 크게 와닿았습니다. 여당 위원님들께도 깊은 울림을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용산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민생을 위하는 국회,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한시라도 빨리 국회로 돌아와 민생을 위한 협치에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에 엄중히 경고를 합니다. 상임위 출석 거부하는 명백한 회의진행 방해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우리 사회 최대 현안이라 할 수 있는 의료대란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차관 상임위 출석을 요구했습니다만 국회법에 따라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장차관들이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자 입법부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행위입니다.

장관은 법률상의 권한도 없는 사실상의 유령단체인 여당의 특별위원회를 기웃거릴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선택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출석해야 합니다. 국회에 대한 모욕을 멈추고 즉시 상임위에 출석해 국민의 물음에 성실히 답하십시오. 계속해서 용산과 여당의 지시만을 따르며 국회의 회의진행을 방해하고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의 가치를 훼손한다면 그에 따르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또한 이번의 의료대란은 정부의 밀실 행정으로 야기되었기에 명백히 정부의 책임입니다. 정부는 일방적인 결정만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의료계, 환자단체 그리고 시민들과 충분한 대화와 논의의 과정을 거친 후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의료개혁 시 국민의 공감이가 없다면 의료계의 목소리는 아무런 힘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도 요청을 합니다.

여당 위원들이 하루빨리 돌아와 위원회가 정상화되기를 소망하지만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적어도 법안을 다루는 소위원회만이라도 우선 구성해서 정상 가동시킬 것을 제안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민 그러면 이번에는 이주영 위원님.

○이주영 위원 개혁신당 이주영입니다.

국회가 개원한 지 3주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에 들어와서 3주를 보내며 왜 국민들이 국회를 가장 신뢰하지 못하는 기관이라고 하셨는지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일하는 국회, 일이 되게 만드는 국회가 되려면 5월 29일 밤에 임기를 마치고 5월 30일 아침에 회의를 해도 모자랄 의정 갈등의 혼란 정국입니다.

3주가 지나도록 아무것도 진행되지 못하고 국민의힘은 이 위원회에 참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당은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사람들을 만나 의미 없는 대화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의학교육은 3개월 멈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3개월 동안

학생 교육과 전공의 수련이 멈춘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면 보건복지부는 처음부터 생각을 다시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일 그걸 몰랐다면 보건복지부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의 미래 예측 능력, 혹은 위기대응 능력에 대해 우리는 깊은 의구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번 주는 격랑의 한가운데인 것 같습니다. 혼란 정국이고 아주 거대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반복되는 근거 없는 명령과 반헌법적인 폭언이 무계획, 무대책, 무논리, 무상식으로 무너지고 있는 의료의 후진 기어 거기다 락을 걸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국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무계획, 무대책, 무논리, 무상식의 4무를 넘어 무책임까지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요청하는 자료 요청과 청문회 증인 출석 건에 성실히 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민 다음은 김윤 위원님.

○김윤 위원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김윤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닷 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2025년도 의과대학 정원이 지난 5월 말 이미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 재논의를 요구하면서 이번 주 하루 휴진으로도 모자라 다음 주에 무기한 휴진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일선 의사 선생님들께 호소합니다. 의료개혁이 정말 중요하다면 대회의 장으로 나오십시오. 국회가 공론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정상화하는 정책과 함께 내후년도, 2026년도의 의대 정원도 합리적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될 의대 증원의 규모를 윤석열 대통령은 밀실에서 결정했습니다. 2000명이라는 숫자를 절대로 바꿀 수 없다고 고집하면서 진료개시명령, 면허정지 같은 강경 대응을 취하면서 의정 갈등을 불필요하게 고조시켜 왔습니다. 이제는 의협이 무기한 휴진을 하겠다고 하니 의협을 해산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의정 갈등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치킨게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정부에 촉구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의사들과의 자존심을 즉시 중단하십시오.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걱정한다면 국회에 나오십시오.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고 의학교육과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서 국회가 정부에 묻고 따져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적극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도 의료 공백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상임위에 나오십시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국회에 나와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어제 우리 국회 보건복지위는 환자단체분들을 만났습니다. 검사와 치료, 수술이 지연되면서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부, 의사가 모두 힘을 합쳐서 이 의정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환자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민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 안녕하세요? 경기 부천시갑 국민 비타민 서영석입니다.

정부 측 좌석과 여당 위원들의 빈자리를 보니까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서울대가 6월 17일 이미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고 세브란스가 6월 27일에 이어서 서울아산이 7월 4일 등 빅5 병원까지도 무기한 휴진을 예고하거나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의사단체의 무기한 휴진과 겁박이 날이 갈수록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의료대란 문제로 시끄럽고 국민들의 우려는 높아지고 결국 환자들의 희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엄정 대응만 외치고 있고 회피와 불출석으로 모르쇠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국회를 우롱하고 무시한 처사는 절대 얼렁뚱땅 넘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대학 현장점검 이후 급조된 2000명 발표, 이견을 무시한 발표 강행, 증원에 대한 분명한 근거 부족, 속기록과 회의록 작성 미흡 등 설명해야 할 사안이 산더미 같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출석 거부하는 물론 보도자료 수준으로 이미 공개된 자료가 아닌 이상 의대정원 관련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휴진과 진료 거부를 종용하는 의사들의 행태 역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무리 정부의 강압적 정책이라도 정부가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철회한다고 제안하면 복귀를 설득하는 것이 선배 의사가 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되레 모든 행정처분을 원천 취소하라며 떼서 가며 판을 깨는 것은 의사집단이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한다는 선민의식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일부 필수의료는 유지하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말에서 얼마나 환자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지 그 내면적 본질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정부와 의사들은 환자를 벼랑 끝 낭떠러지로 내모는 적대적 치킨게임을 당장 멈추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본분에 따라 즉시 대화 테이블에 앉아야 합니다. 과거로 시간을 돌리는 불가능을 꿈꾸지 말고 미래의 시간을 현명하게 준비하기 위한 양측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지금의 방식은 누구의 동의도 얻지 못하고 견디기 힘든 후과로 돌아올 것입니다. 서로가 상대를 괴물이라고 주장하며 괴물과 싸우겠다고 스스로 괴물이 되어 주변과 공동체를 초토화시킨다면 결국 공멸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의사들의 환자의 생명을 가벼이 여기는 행태, 내가 죽더라도 의사를 처벌해 달라는 환자들, 엄정 대처만 되풀이하는 정부. 우선 정부는 의정 갈등을 증폭시키지 말고, 환자의 목숨이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채 상병 사망 사건처럼 수사 외압을 덮으려고만 하지 말고 의사 증원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의사들도 더 이상 의대 증원 백지화 주장만 하면서 국민을 협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환자 곁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의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 특히 중증·희귀 질환, 분만 등 응급을 요하는 환자들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들의 생명줄을 자르는 행위입니다. 더 이상 의료 공백을 중단해야 합니다.

위원장께서는 청문회 등 강력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다음은 전진숙 위원님.

○전진숙 위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 전진숙입니다.

지난 17일 서울대병원 무기한 휴진에 이어 18일 의사협회 소속 개원의들도 집단 휴진을 시작했습니다. 세브란스병원, 아산병원도 휴진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의료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의료대란을 조속히 해결해야 될 윤석열 정부는 닉 달째 의료계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의료대란 사태는 한마디로 불통 정부가 빚어낸 참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1일 대국민 담화에서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서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00명이라는 숫자는 2035년에 의사가 약 1만 명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한 3건의 보고서에 근거하여 산술적으로 계산한 결과라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논의한 회의도 한 차례에 불과했습니다. 수험생이 5일 뒤 시험에서 100점 맞아야 하니 하루에 20점씩 올리겠다고 하는 허무맹랑한 계획을 세우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렇게 소통도 대안도 없었던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발표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지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초등 의대반, 직장인 의대반 등 의대 입시 광풍이 불고 있고 사교육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진료 공백을 메울 비상대응인력 지원비로 예비비 2000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나이팅게일 대신 웨이팅게일이라는 신조어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대란으로 적자를 호소하는 대형 병원들이 채용 확정된 간호사들의 입사를 연기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생계를 위해서 아르바이트 현장을 전전하고 있다고들 합니다. 고용 불안의 공포증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의료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아울러 저는 이 모든 사태의 시초가 됐던 2000명 증원 근거와 수습 대책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업무보고를 요구했으나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국회법에 따른 출석조차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 의료계, 국회와도 불통으로 일관하는 보건복지부에 국회가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께서 청문회의 추진 그리고 동행명령권 발동, 고발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의정 갈등으로 우리 국민들은 아파도 괜찮은, 믿을 만한 국가를 잃어버렸습니다.

어제 민주당은 4개 환자단체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전공의 중심의 검사, 임상시험 모니터링 등이 마비되면서 치료가 지연되는 상황입니다. 상상 이상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이 국회는, 오늘도 여전히 국민의힘은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 불참으로 텅 비어 버린 이 상임위원장을 보면서 참으로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자녀의 어머니가 의사 여러분께 드렸던 말씀으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환자 곁으로 돌아온다고 해서 정부에 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속히 현장에 복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 여당에게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국민 곁으로 돌아온다고 해서 민주당에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국민이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을 지켜 내는 정치에

함께해 주십시오. 민주당과 함께 국민을 지켜 주십시오. 민생 현장에, 고통받는 국민 앞에 여야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민 서미화 위원님.

○서미화 위원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제가 의사진행발언 전에 저에 대한 신상발언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현안질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여러 준비를 하고 잠도 못 잤는데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가 계속적인 회의가 진행될 것이고 오늘처럼 의사진행발언부터 다양한 현안질의 또 답변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는데요.

저는 시각장애 국회의원으로 소리로 봅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 접근이 소리를 매개로 되기 때문에 사실 선배·동료 위원님들에 비해서 같은 양의 발언이나 질의 답변 이런 것들이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심한 시각장애 당사자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동일한 시간을 부여받아서 상임위에서 발언이나 질의를 할 경우 제가 준비한 의제들을 충분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게 됩니다.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과 동등하고 내실 있는 상임위 활동을 이어 가기 위해서는 통상 시각장애인에게 주어지는 1.2~1.7배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로 합니다. 현재 헌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서 국가공무원시험 채용 등에서도 장애인의 시험 시간을 1.2~1.7배까지 늘려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별한 배려가 아니라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서로 다른 입장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동등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편의 제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시각장애 당사자 국회의원이자 또 소리로 모든 정보를 접근하는 시각장애 당사자로서 앞에 말씀드린 바를 좀 감안해서 우리 박주민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제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편의 제공에 의한 시간을 연장할 것에 대한 요청을 드립니다.

먼저 위원장님 답변을 좀 듣고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주민 예,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미리 못 챙겨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부터 좀 시간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서미화 위원 그러면 의사진행발언해도 될까요?

○위원장 박주민 예.

7분을 드리는 걸로……

○서미화 위원 오늘은 제가 준비한 진행발언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계신 많은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먼저 말씀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이고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국회에 대해서 더 많은 실망과, 정말 국민 여러분이 희망을 갖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이 의정 사태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가진 정부고 여당입니다. 그런데 국회가 시작되고 상임위가 열리고 이 중차대한 의정 상황을 전혀 책임이 없는 사람처럼 그리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그렇게 판단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과 같은 이런 물어볼 사람도 없고 같이 논의 테이블에 나오지도 않는 집권 여당의 보건복지부 상임위원들께 정말 정신을 차리고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들을 더 이상 고통 속으로 몰아넣지 않고 하루속히 빨리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사안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서는 오늘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강력하게, 나오지 않고는 안 되게끔 청문회를 꼭 열어 주시고, 어떻게 해야 나올 것인지 고민이 되시겠지만 꼭 나올 수 있도록 강력한 요청과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민 다음은 김남희 위원님.

○김남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명을 김남희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사태는 이 상황이 되기까지 의료계와 소통 없이 극한 대립을 하며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파국을 몰고 온 윤석열 정부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부는 120일 동안 의료 현장과 대화하겠다고 반복만 하며 환자들에게 희망고문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의료 공백의 위기에도 의사들을 행정명령 등으로 겁박하며 막다른 길로 가려고 합니다. 더구나 오늘 장차관이 현안질의에 출석조차 하지 않은 점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저는 몇 가지 점만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어떤 병원보다 국민의 건강 보호와 치료의 최전선을 지켜야 할 국립병원인 서울대학교병원 교수들이 환자 진료를 거부하고 의사 파업에 앞장서는 현실이 한국의 공공의료 체계의 문제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 공공서비스의 역할을 점검하고 바로 세워야 합니다. 한국의 보건의료시스템이 여러 장점이 있지만 필수의료 접근성, 지역 간 격차, 건강불평등 문제가 심각하고요.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비급여 시장이 늘어나면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의사 증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전공의 처우개선 요구를 하는 것도 보건의료 현장의 문제가 간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상황이 단순히 의사 정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보건의료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고 의사도 환자도 정부도 납득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들의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한국 보건의료시스템의 대안을 찾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그 해법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위원들께도 하루빨리 보건복지위원회에 복귀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민 이개호 위원님.

○이개호 위원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이개호 위원입니다.

의료진의 휴업과 파업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는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다. 무려 4개월째, 따지고 보면 거의 국가적 비상사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의 태도는 참으로 개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정부의 강경대응 또 의사협회와 전공의를 중심으로 해서 집단 휴진 사태가 무려 4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당초 예상한 대로 국정에 책임 있는 여당 위원들은 물론이고 또 정당하게 개최된 상임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답변을 하고 대책을 숙의를 해야 될 보건복지부장관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까지 모두 불참을 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불참과 함께 또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완전히 묵살을 하고 있다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례 없는 여당과 윤석열 정부의 국회 무시 행태에 대해서 정말 개탄을 넘어서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 정부는 무슨 생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으로 부족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그동안 그래도 정부와 여당은 입만 열면 ‘민생, 민생’ 해 왔습니다. 그러한 지금까지의 여당과 정부의 태도는 참으로 공염불이었다 이러한 점을 증명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의사들만 바라보고 있는 환자들 그리고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한 이러한 휴진과 파업 사태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휴진에 동참을 하고 있는 병원 그리고 의료진들은 지금 즉시 휴진을 멈추고 즉각적으로 의료 현장에 복귀해 주실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러한 사태에 이르게 한 정부 여당, 참으로 책임이 큼니다. 이 근본적인 원인이 공론화의 절차도 없이 무작정 독단적으로 추진했던 윤 정부의 이러한 의대 증원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만이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정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여당 그리고 정부의 불출석은 국민을 외면하고 정치를 버린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규정을 하겠습니다.

상임위에 지금 정부 관계자, 장관과 또 관계 공무원들이 모두 안 나왔습니다마는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의해서 반드시 출석을 할 수 있도록, 끄집고 나올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여당 위원들에게도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용산의 윤석열 대통령만 바라보지 말고 국민을 보면서 정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민 다음은 남인순 위원님.

○남인순 위원 여기 계속 신청 먼저 하셨어요.

○위원장 박주민 박희승 위원님 먼저 그러면 하시겠습니다.

박희승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박희승 위원 감사합니다, 양보해 주셔서.

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저희 지역 남원에서는 사실 2018년 서남대가 폐교되면서 의대 티오 가지고 계속 공공

의대 관련 논의가 있었고 당시 민주당에서도 공공의대를 만들려는 의견이 일치해서 예산이 먼저 세워지고 그 뒤에 이제 법안 통과를 기다렸는데 지금의 국민의힘이 장외투쟁에 나가는 바람에 법안이 폐기되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이런 법안이 미리 통과됐었다면 지금 이러한 의정 갈등이 좀 더 미리미리 조절되고 정리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재도 이 법안이 지난 21대도 폐기돼서 다시 제가 대표발의해서 곧, 법안 발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추진 관련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의료 공백, 이로 인한 환자의 건강과 생명이 침해될 수 있어 걱정스럽습니다. 대학병원들의 무기한 집단 휴진,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단체행동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강대강 대응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이 사태 초반부터 정부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했지만 계속해서 말 바꿈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의협을 해산할 수 있다고까지 경고했습니다. 양치기 소년 같은 행태를 중단해야 합니다. 의료계에도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보다 앞서는 가치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사태 해결과 중재를 위해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은 여당 위원님들께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와 관련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관심은 의사들의 파업과 이로 인한 피해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음으로 돌아가 의대 정원 증원 이유와 해법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의사 정원 확대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모든 국민들이 차별받지 않고 제대로 치료받기 위해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점에 이견이 없습니다. 의사 수를 늘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OECD 국가 대비 국민당 의사 수가 부족해서입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무작정 의사 수만 늘리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의사 수를 늘려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필수의료, 지역·공공 의료 분야에서 부족한 의사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는 이러한 점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의사 정원을 1500명, 2000명 늘리면 필수의료, 지역·공공 의료 분야에서 부족한 의사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물론 지금보다 이러한 취약 분야에서 일하는 의사가 더 많아질 수 있겠지만 안정적으로 의료 인력을 확보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윤석열 정부는 진단은 잘했지만 처방은 잘못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서울·수도권에서 활동하는 인기 과, 피부과·성형외과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해 1년에 1500명, 2000명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사 수를 늘렸는데 정작 필요한 곳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늘어나지 않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결국 의대 정원 확대 과정에서 필수의료, 지역·공공 의료 분야에서 근무할 의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함께 추진돼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같은 질병임에도 사는 지역에 따라 치료 결과가 다르고 심지어 생존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해야 합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 의사 수를 늘려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누구에 대한 비난도 직역 간 갈등 조장도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의사 없이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의료계가 할 말이 있더라도 의사들이 환자의 곁을 떠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백이 더 이상 장기화돼서는 안 됩니다. 정부도 의료계도 국민 편에서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민 다음은 남인순 위원님.

○남인순 위원 서울 송파병 출신 남인순 위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2월 23일 보건의로 재난 위기정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을 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저희가 심각 단계를 했었는데 그만큼 지금 의정 갈등으로 인한 상태가 심각하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지금 4개월째 출구가 보이고 있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이 정부가 국가를 경영할 생각이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당연히 국회가 지금 열렸고 또 국회에 나와서, 국회에 도움을 청해야 되는 일들이 많 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긴급현안질의를 통해서 이것저것 좀 확인할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준비를 해 오셨는데요. 오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다시 한번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요. 이후에는 저희가 청문회를 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당장 사실 국회에서 따져 물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미 지금 비상체제로 운영을 하면서 건보의 재정도 8000억, 예비비도 한 2000억, 한 1조를 썼 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도 돈이 제대로 쓰인 것인지도 국회가 당연히 따져 물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후에 지금 필수의료 패키지라고 해서 돈을 10조 이상 넣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건보 재정으로 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지 요. 왜냐하면 건보 재정은 여러 가지 또 국민들을 위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다양하게 쓰여야 되는 것인데 국회와 얘기 없이 할 수 없는 정책들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정부로서는 나와서 이런 제반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국회의 어떤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가 안 가고 국가를 경영할 의지가 없구나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후에 전문의를 중심으로 해서 의료전달체계, 상급종합병원에는 전문의 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겠다고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사실 지금 전공의가 집단 사직을 했는데 사실 전공의들이 계속 이후에 전문의로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의 대 학생들도 휴학을 하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이런 의료의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런 문제를 지금 시급하게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회가 나서서 여러 가지 대화의 창구를 지금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를 여러 차례 밝힌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안 한다? 지금 사실 의료, 지금 당장 의료 공백으로 인한 환자들의 생명의 위협도 정말 심각한 문제지만 이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만약에, 이 업무복귀명령이라든가 행정명령을 통해서 안 된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들어올 수 있는, 대화를 통해서 아니면 국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라도 대화를 해서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게,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 문제도 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의료 교육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학생들이 다 유급이 된다? 그러면 내년에 새로 뽑는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이 의료 교육 자체가 굉장히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의학 교육은 질이 굉장히 문제인데 이런 문제 따져 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련한 참고인들도 나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청문회를 잘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국가 경영할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빨리, 저희가 청문회로 가기 전이라도 현안질의 내일 또 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돌아오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민 소병훈 위원님.

○소병훈 위원 너른고을 광주시갑 소병훈 위원입니다.

22대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서 그리고 국회법에 정해진 날짜 안에 국회의장을 선출했고 그리고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8개 정당에게 상임위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성표를 요구해서 그것을 또 국회의장이 전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 안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했고 상임위를 구성했습니다. 다만 8개 정당 중에서 1개 정당만이 지금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8개 정당 중에서 참여하지 않고 있는 1개 정당은 여당입니다. 여당이다 보니까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기관증인들, 정부부처 사람들이 따라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과연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인지 용산의 정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 정부는 파업 중인 의사들을 향해서 의협이 파업하면 해산시키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출발한 국회의 8개 정당 중에서 1개 정당이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데, 출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단결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마치 파업하는 의협처럼, 지금 파업이나 마찬가지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산을 요구할 수 있어야 됩니까, 국민들이? 정말 더 이상 나빠지지 말고 하루빨리 의회에 출석해서 함께 국정을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부에 그리고 국민의힘에 요청을 합니다. 하루빨리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지금의 어려운 국정을 해결해 나가자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료계에 요즘의 의료 파업 관련해서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새우 싸움에 고래 등 터진다는 현상은 최근에 정부와 의사라는 두 새우가 싸우는 바람에 국민이라는 고래가 지금 상처를 받고 있다,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지금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조건을 걸고 파업을 철회하겠다는 조건부를 내걸었고 또 정부는 그런 조건에 대해서 한 번의 숙의, 의논, 고민도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처럼 즉각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

체 우리 국회에서도 야당에게 왜 협의하지 않고 합의하지 않느냐고 얘기하는 정부 여당이 왜 의사들에게는, 의사들의 조건에 대해서는 한 번쯤 고민해 보지 않고 있는 겁니까? 이게 과연 국민을 생각하는 건지.

정부 그다음에 의사 모두에게 정말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파업은 멈춰야 됩니다. 즉시 멈춰야 되고 파업을 멈춘 다음에 정부 여당이 함께 대화를 이어 가기를 정말 원합니다.

어제 저희 보건복지위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환자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정말 저도 과거에 알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을 듣게 됐는데 너무나 안타깝고 그리고 국민들이 안다면, 우리 국민들은 잠재적인 환자입니다. 언제 내가 환자가 될지도 모르고 언제 내가 병원을 찾아야 될지 모르는데 그 시기에 만약에 오늘 같은 현상이 벌어졌다면 모두가 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환자들의 목소리 전 국민이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환자들의 목소리를 정부와 의료계가 똑같이 경청해서 지금의 사태를 빨리, 하루빨리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민 지금 거의 다 말씀하셨고.

강선우 간사님 말씀 들겠습니다.

○강선우 위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간사 서울 강서갑 강선우입니다.

국민의힘 위원들 자리가 텅 비어 있습니다. 총선 때 일하게 해 달라, 뽑아 달라라고 호소를 한 결과입니다. 선거 때는 일하겠다며 뽑아 달라고 하더니 놀고 있습니다. 양두구육 정권에 아주 걸맞는 여당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특위를 구성해서 국회의원 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특위에서 의협 회장 만나서 ‘많이 배웠다’ 이렇게 한가한 얘기하고 있지요. 지금 의정 갈등, 의료대란 현상이 관광지입니까? 가서 보고 ‘많이 배웠다’ 이런 소리 하고 있계?

보건복지부 역시 굉장히 문제지요. 17일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집권 여당과는 당정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회 상임위에 불출석했지요. 조규홍 장관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 따져 묻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조규홍 장관은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아닙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의힘 당직자 아닙니다. 상임위 출석하십시오.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지난 전체회의에서도 정부는 국회법에 따른 출석 요구 거부했고 오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의료대란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 추진하고 국무위원 등을 대상으로 증인으로 출석을 추가적으로 의결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 인사들의 국민 생명 경시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민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정부의 지금 행태에 대해서 적절한 지적 그리고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이 과정에서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짚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벌 조항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출석 요구에 대해서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그래서 이제는 좀 더 강제력이 있는 국회법에서 규정된 청문회 절차, 증인 출석 요구 등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간사 위원님과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강선우 위원 외 14인 서면동의)

○위원장 박주민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선우 간사님 등 위원님 열다섯 분께서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오늘 출석하지 않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에 대한 청문회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따른 안건을 오늘 의사일정의 제3항 및 제4항으로 각각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11시37분)

○위원장 박주민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 제3항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혜련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예, 말씀하십시오.

백혜련 위원님.

○백혜련 위원 지금 청문회 관련 실시계획서에 보니까요 그 목적에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추진함’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협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주민 협소하다……

○백혜련 위원 예, 청문회가 의대 정원의 문제로만 국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다 현 의료대란과 관련한 그런 내용을 추가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그러면 저한테 위임해 주시면 그런 식으로 나중에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그리고 아까 백혜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현 상황에 대한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6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청문회를 실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문회 실시계획서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청문회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11시38분)

○위원장 박주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문회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등 4인으로 하며 참고인은 강희경 서울대 병원·의대 교수 비상대책협의회 회장 등 10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청문회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오늘 우리 위원회는 청문회 실시와 증인 등 출석 요구, 자료제출 요구 등을 의결하였습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위원님 중에는…… 이 출석요구서, 증인 출석요구서 등을 수령하지 않기 위해서 증인 등이 회피한다든지 하는 상황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위원회 실무진께서는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반드시 제대로 송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보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최하여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증인 및 참고인 명단

증인(4인)

성명	직업	신문요지 및 신청이유	출석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계획 총책임부처 입장	6. 26.(수)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의료대란 및 의사파업 관련 주무부처 차관 및 의대 정원 증원 계획 담당 차관으로서의 입장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각 의대에서 제출한 의대 증원 수요 타당성 검토를 위한 의학교육점검반 총괄로서의 입장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의료대란 야기 및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계획 관련 대통령실 입장	

참고인(10인)

성명	직업	신문요지 및 신청이유	출석일
강희경	서울대 병원·의대 교수 비상대책협의회 회장	의료대란 및 의사파업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입장 청취	6. 26.(수)
박 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의대 정원 이슈 및 의료 공백 관련 전공의 상황과 전공의단체의 입장 청취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	의대 정원 이슈 관련 학계의 의견 청취 및 의대 증원의 현실성 여부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의료 공백 관련 환자단체 의견 청취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원장	의대 정원 이슈 관련 학계의 의견 청취 및 의대 증원의 현실성 여부	
양은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수석부원장	의대 정원 이슈 관련 학계의 의견 청취 및 의대 증원의 현실성 여부	
이필수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의대 정원 이슈 관련 의료계의 의견 청취 및 의대 증원의 현실성 여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의대 정원 이슈 관련 의료계의 의견 청취 및 의대 증원의 현실성 여부	
최희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의대 정원 이슈 관련 관계자 의견 청취	
한수영	병원간호사회 회장	의료 공백 관련 병원 간호사 고충 청취	

○출석 위원(16인)

강선우 김남희 김선민 김 윤 남인순 박주민 박희승 백혜련 서미화 서영석
소병훈 이개호 이수진 이주영 장종태 전진숙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진선희
전문위원 정경운
전문위원 조문상

【보고사항】

○의안 회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1.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7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1. 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6)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1. 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1. 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04)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1. 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16)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1.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22)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1.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23)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024. 6. 11.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2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1.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1. 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1.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6)

이상 11건 6월 12일 회부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2.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5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2.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2. 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7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2.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2. 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2.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2. 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4)

이상 7건 6월 13일 회부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3.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3.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3.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75)

이상 3건 6월 14일 회부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4. 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4.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4. 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4. 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4. 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1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4. 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17)

이상 6건 6월 17일 회부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7. 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6)

6월 18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2024. 6. 11. 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78)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2024. 6. 11.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79)

이상 2건 6월 1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24. 6. 11.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4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2.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8)

이상 2건 6월 1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24. 6. 12.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9)

6월 1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구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훈령	예규	고시
보건복지부	-	-	-	1	-	3
식품의약품안전처	-	1	-	-	1	3
질병관리청	-	-	-	1	-	-